

“교권 보호, 학력 신장 위해 필수”

서거석 교육감, 부안서 학부모·교직원들과 ‘공감토크’… 농촌 유학 지원 방안 등 교육 현안 논의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23일 부안 지역 학부모·교직원들을 만나 전북교육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부안예술회관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가졌다. 특히 서 교육감은 이날 특강을 통해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학력 신장을 소개한 뒤, 이를 위해서는 교권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참석자들과 △농촌 유학 지원 방안 △작은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진로진학지도 지원 방안 모색 등 전북교육 정책과 △노후시설 환경개선 △면 단위 학력 신장 지원 △관현악 예술 동아리 지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서 교육감은 “공감토크를 통해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전북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3일 부안예술회관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가졌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대학사랑의 마음, 이곳에 심겠다”

전북대, 제12대 故장명수 총장 1주기 추념식

故 장명수 전북대학교 제12대 총장의 1주기 추념식이 24일 본교 교정에서 열렸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故 장명수 총장의 가족들과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 및 역대 총장, 장전 총장을 기념하는 모임의 구성원 등이 참여해 그가 남긴 업적을 함께 나누며 고인을 추모했다.

유응교 명예교수의 헌시로 시작된 추념식에서는 양오봉 총장의 추념사와 함께 전북대를 푸르게 가꾸고자 했던 故 장 총장의 뜻을 이어받는 의미를 담은 반송 나무를 식수했다.

1991년 9월 취임한 故 장명수 총장은 푸른 숲에서 푸른 기개와 청운의 꿈이 솟아난다는 확신으로 캠퍼스에 거목을 심고 거석을 세우는 등 캠퍼스 공원과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또한 발전기금을 모아 삼삼문화회관을 완공했다.

이날 추념식에서 양오봉 총장은 “故장명수 총장님이 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니 모두가 전북대학교 100



故 장명수 전북대학교 제12대 총장의 1주기 추념식이 24일 본교 교정에서 열린 가운데, 양오봉 총장 등 관계자들이 반송 나무를 심고 있다.

년 미래를 계획한 일들”이라며 “올해 개교 77주년을 맞은 이 뜻깊은 해에 故장명수 총장님의 열정과 대학사랑의 마음을 이곳에 심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 전문가 1세대’ 장

명수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90세로 별세했다. 도교대에서 도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1963년부터 32년간 전북대 교수로 재직했고, 전북대·우석대 총장, 전북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NO!란 우산’ 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15개 초등학교와 11개 중학교에 ‘학교폭력 NO!란 우산’ 1,500개를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전 사회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우산은 학생자치와 연계해 우천시 대여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 3주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학교폭력 NO!란 우산’이 일상 속에서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유용한 도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교직원 대상 워크숍

전주기전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4일 교직원 대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진로 및 취업 전문성 지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스피치&리더십 특강 △장애인식개선교육 △폭력예방 교육 △진로취업 전문성 지도 방안 및 취업률 관리 방안등을 안내했다.

조덕현 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진로·취업 지도가 이뤄지기 바란다”며 “우리대학 교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공직복무 점검

본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중심… 복무 위반·품위손상 행위·여름철 재난 대비 비상대응 태세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공직복무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 점검사항은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 출장, 초과근무 부적절 등 복무 위반을 비롯해 △사회적 물의 야기 및 품위손상 행위 △폭염·장마 등에 대비한 비상 대응 태세 등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갑질근절 등의 교육 여부와 행동강령 이행 실태, 청렴 사책에 따른 업무처리 이행 실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

이다.

이흥열 감사관은 “휴가철을 앞두고 복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점검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 전문가 1세대’ 장

명수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90세로 별세했다. 도교대에서 도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1963년부터 32년간 전북대 교수로 재직했고, 전북대·우석대 총장, 전북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법적 토대 마련

이정린 전북자치도의원,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 1)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최근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음식물 쓰레기양을 억제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 조사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내용도 담았다.

특히,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매년 억제 기본방향, 추진 목표, 목표 달성 방안, 실태조사, 발생 및 처리 현황 등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실태를 분석해 학교 급식 시설의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이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 버려지는 음식물을 억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절감되고,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5일에 열리는 제 41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여성정책연구소는 24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8호에서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정책 관련 연구 활성화·지역발전 기여

전북여성정책연구소, 전북대 부설 여성연구소와 ‘맞손’

젠더 관련 공동연구·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 상호협력

전북여성정책연구소(소장 유은경)는 24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8호에서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소장 진명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서로 협력해 전문인력 교육, 학술정보의 상호협력 증대,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공동추진 등을 통한 여성정책 관련 연구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사회과학, 법학, 과학학, 문학, 여성학 등 융복합 분야에서 젠더와 관련된 공동연구·조사 및 자문, △세미나·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 성과 및 정책 홍보활동 공동 수행, △기타 각 기관의 우수 증진 및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유은경 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청년과 여성들이 처한 다양한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돌아보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명숙 여성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은 도내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는 데 실천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의 성정책 홍보활동 공동 수행, △기타 각 기관의 우수 증진 및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학은 JK힐링센터에서 전북트레이너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재활치료·트레이닝 분야 연합 활동 펼친다

전주기전대, 전북트레이너협회와 협약 체결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JK힐링센터에서 전북트레이너협회(협회장 김현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재활(직업)치료 및 필라테스·트레이닝 분야 연합 활동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트레이너협회 이사장과 전주기전대학 작업치료과 안소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재활치료를 알리는 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재활 치료 접근법 필라테스·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해 학생들이 재활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안소현 교수는 “작업치료과는 재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체해부학 및 필라테스 지도자 양성 과정을 운영 중”이라며 “치료사 출신 필라테스 강사를 배출해 학생들이 지역 재활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현희 협회장은 “전주기전대학과의 협업으로 재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현장 맞춤형 전문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성료

총 3082명 출전… 겨루기·격파·폼새 부문서 경합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제2회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전했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전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겨루기(550명)·격파(764명)·폼새(1768명)에서 총 3,082명이 출전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박노준 총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 대회를 통해 태권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태권도의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기(國旗)인 태권도의 혁신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5일 열린 개회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유희태 원주군수, 이종갑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유익식 안주군의회 의장, 곽봉수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회장, 황인홍 무주군수, 김세혁 대한태권도협회부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조영기 국기원 기술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우석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은 폼새와 격파 등을 접목한 ‘호라이즌’과 ‘우석의 꿈은 이루어진다’를 선보여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